

10월 농업관측정보

채소관측

◆ 주요 채소류 출하·가격 전망

- 배추·무 출하량 감소로 10월 가격 강세 전망. 가을배추·무 재배면적 감소로 김장철 가격도 강세 전망
- 마늘 10월 가격 9월보다 약 상승 전망.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내년 마늘 재배의향면적 증가 유지
- 양파 10월 가격 9월보다 강세 전망. 내년 양파 재배의향면적 감소, 특히 태풍피해로 조생종 감소폭 확대
- 고추 후기 작황 악화로 추정 생산량 평년보다 적은 수준. 건고추 10월 가격 9월보다 상승할 듯
- 대파·쪽파 10~11월 가격 잦은 강우로 출하면적 감소하고, 작황도 좋지 않아 동반 강세 전망
- 출하량 많아 수미 10월 가격 약세 전망. 11~12월 저장 출하될 고랭지감자도 많아 가격 약세 지속될 전망
- 당근 10월 가격도 출하량 많아 약세 전망. 가을당근 재배면적 감소로 11월부터 가격 회복세 전망
- 출하량 줄어 양배추 10월 가격 강세 전망. 가을양배추 재배면적 줄어 11월에도 가격 강세 이어질 듯

◆ 호우 및 태풍 피해 발생

- 당근감자 : 파종 완료된 재배면적의 상당부분 침수 또는 유실 피해 발생하였으며, 유실면적은 시기 상 재파종 불가능할 전망
- 양배추 : 이미 정식된 면적의 과반수 정도 침수 또는 유실 피해, 특히 조생종 양배추 피해 면적 커
- 쪽파 : 구쪽파 침수 또는 유실 피해 발생하였으며, 중구 확보 여의치 않을 경우 파종 지연 우려
- 월동무 : 이미 파종된 면적의 대부분 침수피해를 입었으나, 재파종 가능할 듯

◆ 겨울작형 채소류 영향

- 겨울당근·가을감자 : 재배면적 작년보다 각각 30%, 38% 감소하여 당초보다 감소폭 커져
☞ 피해면적은 월동무로 작목 전환 가능성 높아
- 겨울양배추 : 재배면적 작년보다 16% 감소 전망
☞ 특히, 조생종 양배추 출하기 가격 강세 예상
- 구쪽파 : 재배면적 줄어 내년 중구가격 강세 전망
- 월동무 : 재파종과 당근감자에서의 작목 전환 시 재배면적 줄지 않을 수도
☞ 가격 안정 위해 파종확대 자제 필요

과일관측

◆ 올해 추석 사과 가격 약세 전망

- 추석 사과 공급량이 작년보다 29% 증가할 전망
- 사과 당도가 좋지 않아 수요도 강하지 않을 듯
- 추석 사과 가격은 작년보다 다소 낮게 형성 될 전망
- 추석 배 공급량은 작년보다 16% 증가하고 당도도 좋지 않을 전망
- 추석 배 가격은 작년보다 다소 높지만 전월 보다 낮게 형성될 듯

◆ 노지온주 생산량 60만톤 전망

- 노지온주 생산량이 60만톤으로 작년보다 10% 증가할 전망. 생산량과 출하량 감소 노력이 요구됨
- 9월 하우스온주 공급량이 다소 증가하나 추석 수요 증가로 가격은 보합세 전망. 10월 가격도 9월과 비슷할 전망

◆ 9~10월 포도가격 강보합세 전망

- 9월 포도 공급량이 3% 감소하고 품질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. 가격은 8월 대비 강보합세 전망
- 10월 이후 공급량도 작년과 비슷하고 당도도 좋아 가격은 9월과 비슷할 전망

◆ 단감 생산량 23만톤 전망

- 단감 성목면적이 7% 감소하나 성목단수가 18% 증가하여 생산량은 9% 늘어난 23만톤 일 전망

- 9월 공급량이 다소 증가하지만 추석 수요 증가로 가격은 작년 대비 강보합세 예상

◆ 9월 복숭아가격 약세 전망

- 복숭아 작황이 아주 좋아 9월 공급량도 9% 증가할 듯. 당도는 좋지 않은 편
- 9월 복숭아 가격은 8월보다는 상승하지만 가격이 좋았던 작년보다 낮을 전망

과채관측

◆ 9~10월 가격 전망

- 일반토마토 8월 기상악화와 강원도 산지폐기로 가격 회복세 보일 전망
- 방울토마토는 출하예상면적이 증가하지만 단수가 감소하여 여름철속되었던 약세에서 벗어날 듯
- 백다다기오이는 출하량 감소로 9월에 가격 강세 보이다 10월에 약세로 전환될 듯
- 취청오이는 출하량이 적고 백다다기 오이 가격강세로 9월 가격 동반 상승할 전망
- 애호박은 노지재배 면적 감소와 추석 수요 증가로 강보합세 보일 듯
- 쥬키니는 주산지의 8월 기상악화로 단수가 크게 감소하여 가격 강보합세 유지할 전망
- 일반꽃고추, 청양계 꽃고추는 강원도 산지폐기와 출하량 증가세 둔화로 여름철 지속되었던 가격약세 벗어날 전망
- 수박은 출하예정면적 증가하지만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 강세 유지 될 듯
- 참외는 주산지에서 해충(담배가루이) 피해가

극심해 출하예상면적과 단수가 크게 감소하여 강세 보일 전망

◆ 9~10월 정식전망

- 일반토마토 정식의향면적 가을철 가격상승 기대감으로 4% 증가할 듯
- 방울토마토 정식의향면적은 9월에 2% 감소하고 10월은 5% 증가 전망
- 여름철 지속된 오이가격 강세로 백다다기 오이 정식의향면적은 4%, 12% 증가할 듯
- 취청오이는 9월에 10% 증가하고 10월에 8% 감소 전망
- 애호박은 가을철 억제작형이 감소하지만 겨울철 축성작형 증가로 의향면적 2%, 6% 증가할 전망
- 일반풋고추 정식의향면적은 4%, 1% 증가하지만, 청양계 풋고추는 오이맛고추로 품종이 전환되어 3%, 2% 감소할 듯
- 딸기 정식의향면적은 신규재배단지 조성으로 1% 증가할 전망

축산관측

10월 육계 가격 800~1,000원 전망

- 질병 빈발 시기, 방역 철저 필요

< 사육수수 전망 >

- ◆ 병아리 생산 증가로 10월 육계 사육수수 전년대비 5.7% 증가
- 병아리 생산수수 증가로 10월 육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5.7% 증가하나, 9월보다는

15.3% 감소한 5,147만수로 전망

◆ 종계 입식수수 크게 늘어 내년 2월까지 사육수수 증가 지속

- 육용 종계 입식수수 증가로 10월 이후 내년 2월까지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, 향후 전년대비 사육수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

◆ 10월 도계수수도 전년대비 6.1% 증가

- 사육수수 증가에 따라 10월 도계수수는 전년보다 6.1% 증가하나, 9월보다는 15.0% 감소한 4,615만수 전망

< 육계 가격 전망 >

◆ 10월 육계 가격 800~1,000원 전망

- 북 경기 동안 냉동 닭고기 비축량이 크게 줄지 않았고, 도계수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, 10월 육계 가격은 800~1,000원에서 형성될 전망
- 11월에도 닭고기 공급과잉이 예상되어, 육계 가격은 900원 내외에서 형성될 전망
- 연말이후 2008년 연초까지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, 육계 가격 약세 장기화 우려

◆ 질병 빈발 시기 도래, 농가들 방역 철저 필요

- 10월 이후 질병이 빈발하는 시기로 농가들은 차단 방역에 힘써야 ㉞

(출처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)